

제 2 장

텔레마띠끄

(L'Informatique de la société)

원저 : Simon Nora & Alain Minc

“

텔레마띠끄는 프랑스의 Simon Nora와 Alain Minc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국정보고서로서 정보통신 제1집의 연속 게재입니다.

”

진 용 옥 편역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목 차

-
- 제 2 장 텔레마띠끄의 새로운 권력작용
 - 1. 시스템을 조사하는 중립도구
 - 2. 컴퓨터화와 권력작용
 - 3. 컴퓨터화의 저항 세력들의 전략
 - 제 3 장 텔레마띠끄와 국가의 자립
 - 1. 새로운 산업의 필요성
 - 2. 통신망의 주권
 - 3. 통신망과 데이터 뱅크
 - 제 2 부 역 점
 - 제 1 장 전기통신
 - 1. 통일된 전략의 부재
 - 2. 시급한 과제 : TPANPAC의 성공
 - 3. 통신정책의 수행

제 2 장 : 텔레마띠끄와 새로운 권력작용

텔레마띠끄의 효과는 세력집단간의 기존 구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보다 사회적인 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파악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왜냐 하면 정보화이든 사회화이든간에 주된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들 용어의 구분이 애매한 것이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로서의 텔레마띠끄란 노동계층이나 노동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제가 변형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과 진행과정의 발전을 말한다.

정보화라는 의미는 가장 완벽한 표현과 조직의 점진적 합리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권력작용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즉 권력작용 자체에 관한 문제로 주어진 체제 내에서 능력과 권위, 지배영역이 상호간에 적응하게 된다는 의미와 한 사회에서의 전반적인 규제형태와 상응하는 것으로, 시장, 계획, 사회적 계층관계 등에 권력작용의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국소적인 권력작용은 수시로 변하며 어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혁신에 의해서 좌우되나 변화되는 정도는 완만한 사회적 흐름과 관련되며 이런 형태변형은 정치적인 "Short Circuits"에 의해서 나타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짙다.

정보화와 권력작용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몇 년 뒤의 미래와 아주 먼 미래 사이를 구별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다. 장기적인 성향의 변화는 이 보고서의 제 3부의 주제가 된다. 여기서는 예측가능한 단기적인 결과만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러한 결과는 중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면밀한 검토는 본 책자의 의도상 부적합한 것이 되므로, 특정 부문에 한계를 정하여 정보화에 대한 반응을 분석코자 한다. 이는 완전하나마 몇 개의 예시를 다룸으로써 보다 광범위하면서도 의미 깊게 주제에 대한 조사를 고무시키고 있다. 첫째 결론은 정보기술이 오

늘날 거의 완전히 융통성 있는 도구가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정보를 다루는 기구는 권력기구의 모든 조직하에서 큰 어려움 없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정보화기구는 수많은 경제기구들간에 벌어지는 경쟁의 조건과 규칙들을 붕괴시킬 것이며, 대부분의 조직에서 본점과 지점간의 위치와 상태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무효화시켜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 확산되는 정보의 기능이 의료, 교육, 법, 사회보장, 노동조건 등에 심각한 변화를 주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므로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일어나는 안전과 권리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1 시스템을 조사하는 총람노구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는 계층적이고 고립된 것이었으며 집중되어 있다.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조직의 형태에 대해 속단되어졌었다. 그러나 컴퓨터의 등장으로 기업이나 정부의 과중한 업무는 경감되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중심부를 강화시키고 외곽부는 약화시켰으며, 집행부를 약화시키는 반면 관리부문을 강화하였다. 오늘날의 데이터 처리는 분권화, 분산화를 추구하면서 자율적 선택문제만이 남아 있게되었다.

A. 분산화된 데이터 처리

은행, 보험회사, 기업, 행정기관 등 가장 활발한 이용자로 하여금 조직의 외곽부에 많은 단말기를 설치(은행의 지불창구, 국세청의 징수국)한 하나나 그 이상의 중앙 컴퓨터, 중간부위 기계를 조직할 수 있는 망을 구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그 자유재량이 존재하지 않거나—이때의 데이터 처리의 분산은 가식적—또는 미리 규정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순전히 분산화된 데이터 처리인 것이다. 정보방식은 이해력이 없고 프로그램도 불가능한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말기가 데이터의 획득 및 수신을 함으로써 처리된 정보가 이용자에게 보내지게 된다. 그 예

로서 전자예약제도의 경우 창구 담당자는 그의 단말기를 이용해서 좌석의 여유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접수를 받는데, 이 망은 이용자가 자료를 컴퓨터에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기존의 인쇄과정을 단축시킨다. 그러면 컴퓨터는 자료를 처리하고 회답하여 서비스 품질은 향상시키지만 책임의 분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짓(False)” 분산의 형태를 띤다.

만일 단말기가 “지적(Intelgent)” 이어서 프로그램화될 수 있고 자동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되면, 이용자는 여러가지 일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컴퓨터의 분산이다. 수납업무(collection)와 같은 경우는 회계처리(keeping account)와 같이 수작업으로 지금까지 해 온 일을 초기단계에서 단순한 자동화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분산된 컴퓨터화 그 자체가 책임을 널리 분산시킨다기 보다는 조직의 관리이며 공인회계사 사무소와 같은 갖가지 서로 다른 수준 사이에서 경쟁영역의 배분을 계속해서 결정하는 것은 조직 경영상의 문제이다. 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지적 단말기 설치로 창구 담당자가 회계처리를 계속할 수 있으며 그만큼 책임을 증가시키는 것이 된다. 몇몇 보험회사는 어느 한 기관이 여러 고객과 계약할 수 있도록 컴퓨터화함으로써 책임을 분산하는 데 있어 고무적인 기회를 갖게 된다. 과거에는 이들이 재난의 형태(type of disaster)로 조직되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보험에, 다른 사람은 화재보험에 전념하는 것이다. 컴퓨터화는 책임분산의 구실과 자극이 동시에 될 수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하부의 조작 단위가 갖는 자유의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경영이다. 어느 누구도 독단적으로 단말기를 프로그램화시킬 수 없으며, 결국 그러한 컴퓨터화는 분권화이자 분산화되는 것이다.

B. 컴퓨터의 분권화

통신망의 확장과 데이터 뱅크의 증가는 컴퓨터와 지능 단말기의 경제적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러한 장비를 갖춘 공증인들은 회계처리, 연속 서류작업 및 고객의 계산서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얻을 수 있다. 즉,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그들이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다. 회

선망에 연결된 단말기는 공증인들이 법률 데이터 뱅크, 컴퓨터 처리된 판결문 열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동시에 자신들의 기구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서비스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처리과정에서 볼 때 업무는 독립된 경제주체에 제공되는 것으로 분산된 컴퓨터화인 것이다.

C. 컴퓨터의 자율화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는 자율 컴퓨터가 되어 이용자 자체가 소유자가 되는데 데이터 뱅크 운영자나 정보처리부분의 간섭이 배제된다. 그 대신 분산화된 컴퓨터화는 시스템을 연결하는 가능성에서 간섭 문제가 생기게 된다. 언젠가는 어떤 기기라도 접속될 수 있게 되어 그 구분은 명백하지 않은 것이다. 상업적인 계획은 그들이 차후에 제공할 역무를 갖게 될 때 그 사실을 공포할 권리를 유보하면서 제조업자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발표하는 것을 막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컴퓨터화는 분산, 집중 또는 자율적인 데이터 처리방식 간에 선택할 필요를 없게 한다. 만약 집중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속박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나 제3의 조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산업에 있어 새로운 컴퓨터화는 작업장에 보다 광범위한 자율성을 제공하며 컴퓨터는 경영자에게 계속적으로 조회하지 않고서도 과제를 해결해 나가지만, 반대로 강력한 집중화 수단을 형성할 수도 있다.

망은 컴퓨터로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이나 즉시 생산을 위한 운용을 용이하게 한다. 이 경우 노동자들은 단속이 잦은 감독 아래서 겪어 온 제한된 자유에서 벗어나 생산과정 속에 몰입하게 된다. 은행과 같은 제3의 조직에서 대안의 선택은 대단히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분산화된 망은 어떤 카운터에서든 서류철과 접속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고객의 계산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을 분권화시킬 수도 있게 한다. 분권화된 방식은 회계 처리를 하도록 각 부서에 위임하며 중앙집중 컴퓨터는 관련 파일을 확인하는데만 사용된다. 이는 이론적인 것만은 아니고 예를 들어 Agricultural Soan Society는 분산형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

로 3대 국유화 회사들은 분산화된 망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컴퓨터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그 구조를 선택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와 기존상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저항이 뒤따를 수도 있다. 동일한 현상이 경제주체, 행정 서비스나 사회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국소적인 권력작용의 면에서 관찰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출되게 될 것이다.

2. 컴퓨터화와 권력작용

A. 경쟁조건의 문제제기

종래의 데이터 처리는 기업의 내부적인 문제였다. 그것은 경쟁자, 동업자, 면허자, 하청업자 등의 관계를 변경시키지 않았다. 그와 달리 텔레마띠끄는 경제주체의 경쟁력을 변화시키는데 개선시키는 면이 있는가 하면 불이익을 남기는 면도 있다. 전자이체의 발달, 예약망의 확장, 그리고 소비식품시장의 컴퓨터화 등을 들 수 있다.

① 전자화폐

지금까지 은행간의 거래는 전산화 처리 방식보다 내부적 운용방식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수표가 오가지 않는 전자 통화론의 개념이 도입된다면 처리비용의 삭감과 더불어 보다 신속히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즉, 개인 수표책의 발행과 처리가 훨씬 신속해질 것이다. 만일 은행들이 소금액의 수표를 더 이상 취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작업량이 감소될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차변과 대변을 잘 정리하고 이를 통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은행이 업무량을 감소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즉, 은행중에서도 송금하는 것보다 수표발행이 빈번한 은행들이 이러한 업무량 감소혜택을 받는 것이다. 혜택받지 못하는 은행에 반해서 이들 이익이 뒤따르는 은행들은 이 전자통화론의 정책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4개의 대규모 은행이 2개 종류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중재가 없다면 계속적인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매우 큰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전자통화는 은행구좌 가입자들이 신용카드를 전반적으로 사용하게 됨을 암시한다. 리얼타임 방식으로 조직되는 대규모 회선망은 지불과 동시에 즉시 지불이 올바르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 은행의 예러 창구에서 행해지는 지급 및 수금의 대조작업이 필요하게 되고, 사실상 개정거래나 지불은 어느 기관에서라도 취급될 수 있다. 고객의 유치방법이 바뀌어지고 많은 수의 지점보다는 개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능력이 자산이 된다. 이 때 소규모 금융기관들은 그들의 고객에 대해 융통성과 친밀감을 갖게 되어 이익을 보게 된다. 이로써 많은 수의 지점창구를 가진 대규모 은행은 전자통화의 개편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2) 화석의 전자예약제도 확장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항공운송을 위한 예약 단말기는 항공사의 본점과 지점, 그리고 철도운송을 위한 철도역과 SNCF(Societe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cais: 국영철도회사)지점에 설치되어 왔다. 이러한 예약방식을 모든 여행사로 확장하는 데 어떤 기술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연결회선의 시설을 요구한다. 망의 확장은 서비스를 개선시킬 것이지만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항공은 그로 인한 잇점을 박탈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장비를 가진 국영회사와 이러한 장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지점 사이에 이윤갈등이 있게 된다.

(3) 소비품 할당가격의 컴퓨터 처리

오랫동안 소비성 상품시장에 대한 중재가 가능하도록 한 시세를 분배하는 컴퓨터화된 정보망을 만드는 것이 고려되어 왔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Rungis 시장은 그러한 방식을 갖추고 명백한 거래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시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조직형성이 어려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동시에 애매한 절차로 인해 종종 이익을 취하는 중간상인이나 도매업자의 실제 거래형태에 수정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된 일이 없다. 이와 같은 장애는 고정된 방식으로 거래가 계속된 소비성 상품시장에서 민감하게 나타나고, 장애는 모래시계 형태로 조직된 재화나 서비스 등의 모든 시

장에 존재하며 소수의 운영자가 분산된 생산자나 다수의 구매자를 위해 중개자 역할을 한다. 보다 광범위하고 민주적인 정보를 배분함으로써 텔레마띠끄는 특정한 데이터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결국에는 정부도 무시할 수 없는 분쟁이 유발된다.

B. 행정부 내의 권력관계

국소적인 권력작용에 대한 새로운 컴퓨터화의 효과는 경제적 현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시장 밖의 권력관계까지, 즉 각종 행정기관들간 및 국가와 지방단체의 권력관계에 영향을 준다. 망은 지배를 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다.

모든 행정부서는 동등한 속도로 비유성 통신방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다. 경제력이 있는 부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성능이 좋은 장비를 갖추는 것이고, 점차 소규모 부서의 전송업무를 인수받고자 할 것이다. 즉, 공인회계 사무소가 회선망을 관리할 경우, 초기에는 단지 회선망 용량의 20%, 30% 또는 40%만 사용하게 될 것이며, 공인회계 사무소는 경제부·재무부의 전송자료를 우선순위로 고려할 것이다. 4,000여개의 접속점을 갖는 망으로 장비된 Gendamerie는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경찰업무에 협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위력은 반드시 합리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타협에 따라 이루어진다.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일단 투자를 하고 나면 이윤을 남기려는 욕망은 고객들을 종속시키려 할 것이다. 새로운 컴퓨터 기술은 국가와 지방단체 간의 관계를 변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규모의 컴퓨터 보급은 많은 단체가 재정적, 인적 자원의 제한으로 지금껏 고통을 겪어 온 문제점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망의 개발은 수단을 집중시키고 이용을 분산시킴으로써 새로운 집단형성을 촉진시킨 것이다. 텔레마띠끄는 국가나 지역간의 관계에 긴밀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세분화하거나 그룹을 조직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국가통제를 유지하거나 제한한다. 당국은 자체 내에서 행정구조를 개편하는 수단을 제공하되 그들 자신은 집권하의 조류 속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C. 사회적 지위

장차 새로운 컴퓨터화는 의사, 교육자, 노동집단 등 전반적인 그룹과 기타 업무 중에서 전문적인 자격에 영향을 준다.

1. 컴퓨터화와 의사

텔레마띠끄는 의학의 성격, 의사의 조건, 그리고 약간의 전통적 가치를 변경한다. 전산화에 의해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진료의료비가 경감함에 따라 컴퓨터에 의한 치료는 대다수의 환자에게 복합검사를 요구하게 된다. 사실, 컴퓨터화는 일반 개업 의사들로 하여금 과거에 그들이 할 수 없던 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문의를 곤란하게 할 것이다. 한편 전기 심전도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의를 부분적으로 대체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치료방법이 일반화되면서 전문의에서 일반의에게로 전문치료 과목의 전환을 용이하게 할 것이며, 의사와 보조의의 역할간의 한계는 애매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보조의의 책임이 증가될 것이고 이 경우 보조의들도 의사처럼 자격고시를 치루게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화된 마취시설은 환자 스스로 의식을 회복하게 해 준다. 이 결과로 내과의사들은 비중이 큰 다른 업무에 헌신할 시간을 얻게 되는 반면, 그들의 직업적 기능의 한 부분을 빼앗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컴퓨터화는 환경변화에 따라 의료인의 위치를 변경시킬지 모른다. 결국 의료보험 기관의 지불창구와 병원이 망으로 연결되어지면 의료업의 수행이 변경될 것이다. 경제적인 고려는 보다 중요한 것이 될 것이고, 의사는 서비스 공급자로서 보다 품위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의료행위에 있어 사생활의 보장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러한 관점에서 특별한 예방조치가 요구된다.

2. 컴퓨터화와 교육자

교육부문에 대한 컴퓨터화의 전반적인 충격이 현재까지의 보고로서는 분석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화가 교육부문에 영향을 가정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규모 컴퓨터화의 발전은 교수법을 변경시킬지 모르며 따라서 교육자의 지위도 바뀔 것이다. 컴퓨터와 컴퓨터망 그 자체가 어떤 몇몇 사람들이 기대하는 따위의 교육기구가 될 수는 없다. 한 학생을 길러 내는 것은 기술적 정보의 전달에만 그치지 않는다. 로버트는 아무리 프로그래밍이 잘 구성되었다고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에 일어나는 독특한 대화를 유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는 단지 인공지능을 부과해 주므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미지수를 해결해 준다. 컴퓨터의 도움으로 학생들은 복잡한 문제들을 보다 실재 값에 가깝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통계적 분석은 더 이상 단순한 계산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고, 모의실험(Simulation)에서의 표본화 개수는 컴퓨터와 대화하면서 연속적인 반복 방법으로 그때마다 근사치에 접근하는 발전 과정을 그려내는 등, 과거와 조금씩 다른 단계로 진전될 것이다. 만일 이런 변화가 극단적인 결과도 진전되면 교육형태까지 변경시킬 것이다. 수업의 리듬과 종류에 있어 학생들간에 차이가 있을 때 학교 교과과정, 미리 설정된 과정, 훈련의 차이 같은 개념들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이러한 발전은 내과 의사들이 경험한 바와 유사하게 교육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다. 즉, 전문화는 사라지게 되고 교육수준은 다양해질 것이며, 졸업장과 학점에 근거한 딱딱한 범주 요구들은 약화될 것이다. 교육의 성질을 고려할 때 앞에서 이야기한 변화는 확실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변화속도는 빠르지 못할 것이다.

3. 컴퓨터화와 전문자격

새로운 컴퓨터화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며 따라서 기업체의 노무자 취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컴퓨터화는 노동자들의 이익추진 활동이나 노조활동에 새 바람을 일으킨다.

근로조건은 다음 두 가지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자동화는 허드레 일을 필요없게 하여 작업량을 경감시키고 지금까지 고도의 숙련공을 필요로 했던 많은 작업형태를 변모시킨다. 그 예로 인쇄공을 들 수 있으며 자동기계를 설치함

으로써 이들 기술의 가치를 감소시킨다. 인쇄공들은 일반 감독자로 대체되고 자동적으로 숙련공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러한 영향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난다.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날카로운 분석이 필요하다.

작업이 단일화되므로 단조로움으로 인한 싫증이 문제로 대두되니 이는 육체적인 것 보다 정신적인 면이 더 심각하다.

그러한 상황은 컴퓨터화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조만간 노조활동의 중심과제인 봉급수준, 작업시간, 직명 및 고용 등의 조건이 바뀌게 된다.

3. 컴퓨터화의 저항 세력들의 전략

사회기능에 대한 컴퓨터화의 영향은 절실적이고 위험한 것일 것이다. 일단 이러한 위험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 공권력은 저항세력들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힘이 개입되지 않는 행정권한 내에서 이 상태가 수행되어야 한다. 시민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이 컴퓨터화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은 명백한 것임에도 때로는 지나치리만큼 과소평가되곤 하는데, 이는 컴퓨터가 제공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잘 인식되어 있지 않은 데 있다. 한편 공공당국은 중립성을 억제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수호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있다.

A. 시민의 권리와 능률

일반 공중은 컴퓨터가 단순히 파일이나 정리하고 개인의 생활과 자유에 편파적 행동을 하리라 생각한다. 바로 이것이 불의를 일으키는 국민의 하나로 컴퓨터화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한 사례가 되었다. 컴퓨터나 파일은 현대생활에 엄중을 주는 상징적 의미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컴퓨터화와 시민권리 위원회(Commission on Computerization and Civil Liberties)"에서 신중히 연구한 결과 의회

에서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인 끝에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를 휩쓸던 독일 게슈타포는 상호연결된 전자파일 없이도 맡은 바 임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했으며, 오늘날 가장 풍부하고 질서정연한 파일을 가진 스웨덴도 경찰국가가 될 위험성은 미미하다. 이것은 곧 사회구조와 작업상황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Tricot위원회의 연구결과 생긴 입법규정은 이러한 반대세력들의 몇몇을 제도화시키려고 시도한다. 컴퓨터화의 불신감을 배척하면서 이의 효율 및 생활을 간편하게 하는 능력들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가장 좋은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B. 시민의 권리와 개방성 및 취약점

사회가 개방될수록 집단 및 개인업무 상황의 파악이 보다 절실히 느껴진다. 이권투쟁, 권리 특권과 사기는 불분명한 상태에서 발생된다. 파일에 수록되어 있는 시민들의 사생활이나 종교적 혹은 정치적 의견, 그리고 그들의 도덕관념 등의 정보누출로 인하여 민주적인 사회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만일 특출난 데이터 처리로 인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이런저런 내막이 그야말로 상세히 알려지게 된다면 그 기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프랑스에서도 개인소득을 비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사적 정보에 대한 기밀을 보장함으로써 몇몇 사람의 특권을 보장하느니, 공개함으로써 대다수의 권리를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사회가 저항세력의 출현을 허용할 정도로 충분히 민주적이라면, 또 컴퓨터 기술에 따라 야기될 새로운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가 활동적이라면 위험성은 공개되었다는 것뿐이다.

현대적 경영은 신경 중심부를 확장시키려는 경향이 다분한데 이 속의 작은 회선 하나라도 거대한 조직을 마비시킬 수 있다. 데이터 처리의 지나치게 집중되고 조직화된, 그리고 지나치게 계층적인 사용은 고의적이든 우연이든 간에 모래알(grains of sand) 같은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행정당국의 역할은 이

러한 집중화 경향을 제어하려는 세력들을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다만 집중되어야 할 것만을 집중시키고 분산시킬 수 있는 것만을 분산시키되 본질적인 것만을 취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데이터 처리기술을 조직하는 모든 유형을 동등하게 촉진시켜야 하며, 조직화되고 집중화된 통신망을 향한 압력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부가 분산화 및 소규모의 컴퓨터화의 촉진을 위하여 차별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현재까지 사회 무대에서 약한 자들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권력의 재편성이 그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외국정부나 집단에 대해 자유의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몇몇 전략분야에 있어서 최소한의 권력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제3장 : 텔레마띠끄와 국가의 자립

텔레마띠끄 이론의 영향으로 국가 자립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증가시킨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경제적인 건실함과 사회적인 여론으로서 형성될 수 있다. 소수의 부유한 국가들은 자립 자체만으로 만족해 한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나라들은 그들 자신의 국가 안정을 더욱 걱정하고, 과거 한때의 강한 권세를 동경하며 그리고 자율성 확보를 애갈한다. 데이터 프로세싱과 통신망의 개발 및 데이터 뱅크의 창설이 새로운 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1. 새로운 산업의 필요성

A. 과거의 정책

컴퓨터가 처음 등장한 이후 컴퓨터 산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략적 분야가 되었다. 컴퓨터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정보의 특성을 인식한 정부는 즉시 컴퓨터 산업 부문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사실 1945년 이래 원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정부의 철저한 검토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지배를 제한하고 다른 나라보다 더 발전하기 위한 강력한 표현이기도 하다. 정부(프랑스)는 이러한 목적 하에서 주요대책을 집중적으로 제공했으며, 다음에 열거한 나라들은 각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였다.

일본은 컴퓨터 제조에 필요한 기술적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서 과잉보호주의를 취하면서 외부의 모든 간섭을 배제하였다. 산업의 성장을 보장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수출역량과 컴퓨터 산업성장에 전력을 다하였다.

독일은 컴퓨터산업 초창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미국의 우월성을 받아 들었다. 그 후 단계적으로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독일국산」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핵 에너지와 같은 부분에서도 적용되었다. 그와 같이 하여 진정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었고 수출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은 다양한 정책을 채택하였다. 즉, 컴퓨터 산업의 응용부분을 개발하고, 컴퓨터 수요자를 확보하였으며, 그리고 전기통신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등의 정부의 컴퓨터 생산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훌륭히 이루어졌다.

B. IBM 도전의 변천

IBM에 대항키 위해서는 IBM 제품의 장점을 이해하고 IBM사의 성공도를 파악해야 하며 그리고 IBM사의 미래방향을 예측해야 한다. IBM 회사는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다국적 관계를 현명하게 처리했으며, 세계 최고인 미국시장을 개척하고 다시 다른 나라의 시장을 침투해 들어가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IBM 회사는 산업활동과 상업활동을 분산시켰으나, 그의 필

수적인 전략 즉 연구, 투자, 시장개척은 계속 통제해 왔다.

세계 컴퓨터 시장의 60~70%의 점유는 그의 기술적, 상업적 역량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전 세계에 IBM 컴퓨터를 분포시켰다. IBM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도 조그마한 전자부품으로부터 통신위성 생산까지의 전 과정을 망라하지 못했다.

전자부품 사용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IBM은 최고 수준의 기업이 되려고 노력해 온 결과 놀랄만한 속도와 능률로써 성공을 거두었다. IBM은 전기통신분야를 예외적으로 중요하게 취급하였다. 이 일환으로 미국정부로부터 인공위성을 발사할 권리를 얻어내었다. 그러나 그후의 인공위성에 의한 통신은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나 매우 복잡하였다. IBM사가 음성, 영상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함으로써 전통적 활동분야에 있는 전기통신조직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전적으로 컴퓨터 제조에 집중함으로써 이러한 전략에 대처하고자 하는 어떤 정부나 개인 기업은 현재나 미래의 IBM이 아닌 과거의 IBM과 싸우게 될 것이다. 산업분야의 반응은 전자부품업자들과 미니컴퓨터와 범용 컴퓨터 장치, 대규모 데이터 처리, 서비스 회사 등 모든 분야에 관련된다. 그러나 통신조정과 컴퓨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권문제는 통신망에 대한 통제의 방향을 전환시켜 놓았다. IBM은 기계를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고객 및 소수의 경쟁자를 가지고 있다. 또한 통신망 조정자로서의 IBM은 엄격히 산업분야의 한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통신위성의 통제에 참여할 것이며, 사실상 거대한 세계적 조정체계로 통합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불운의 사태에서 출발한 IBM은 세계 무대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로서의 역할을 요청받은 셈이다. 그러한 발전을 위하여 상업적인 전망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의심할 것 없이 정치적인 강요를 측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성공의 범위는 조만간 IBM으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시각을 달리 갖도록 할 것이며, 이로써 정부와 회사 간에 새로운 대화를 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

게 될 것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경쟁에 대해 영성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IBM의 새로운 성격을 파악하고 그들의 통신수단의 견실한 지배력을 가지고 협상위치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나라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제이다. 국가는 그들의 영역 내에서 경제적 경쟁과 사회적인 적대자들 사이의 수궁할 수 있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해관계로 얽힌 국제화는 오늘날 경제적 갈리카니즘*1이 아르몽크**로부터 로마를 유지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같은 목적을 갖는 국제적인 동맹체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는 한 독립은 쓸데 없고 무의미한 마지노선 같은 포위망으로 남기 쉽다. 그러한 정책은 쉽지 않으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도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국가이든 개인이든 데이터 프로세싱 게임 안에 있는 모든 참여자의 이익 범위 내에 있게 된다. 즉, 국가는 그 자신의 사회적 과제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를 보유한다. 한편 정부의 활동이 결여되면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고 IBM의 다이내미즘에 의하여 신속히 보충될 수 있다. 만약 IBM이 산업적, 경제적 발전의 논리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정치색을 띤 사회문제에 빠져든다면 그의 역할은 빛나가게 될 것이다. IBM은 정부특권과 시장 간의 영역을 명백히 하기 위한 교섭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는 IBM의 활동과 역량에 맞서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통신망의 주권

통신망 조직의 발전은 국가와 통신매체 간에 야기되어 온 낡은 문제들을 새롭게 해 주고 있다. 이것은 텔레마띠끄를 사용하여 집권하려 하는 단순한 특권의 반영이 아니다. 전산화에 의한 작업의 효율성을 정당화하고 고객을 유치하

기 위해 통신기관 관리자들이 컴퓨터화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몇몇의 중요 제조업자들이 이 작업을 분담한다면 기업이 조합화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에 중립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IBM의 무한한 힘은 그들의 균형을 깨뜨릴 것이고 컴퓨터화의 양식, 형식, 그리고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통신망의 조정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런 일은 컴퓨터화 계획이 공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통신위성단계에 즉각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A. 표준화의 역량

컴퓨터 사용자들은 하드웨어의 본질을 독립적으로 잘 유지하면서 상호 호환성을 명백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다른 업체에서 생산되는 컴퓨터와 제반 서비스 부품을 직접 이용하지 못했다. 실제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간의 이질성 때문에 통신문 처리를 위한 일반 규칙들이 필요하지만, 역시 컴퓨터간의 상호 연결을 보장하려면 "전기통신기능"에 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정한 컴퓨터언어 및 컴퓨터 문장 문법으로서 송신방식을 통일시켜야 한다. 이것은 특정기업의 영역을 침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 단계는 제조체와 전기통신기구 간의 경계를 변경시킬 것이다. 또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상호간의 작용으로부터 출발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심한 투쟁이 될 것이다. 공중 권력을 통제하는 목적은 표준화를 증가시키려는 전략이지만, 그러한 활동은 두 가지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는 프로토콜(Protocol)의 국제 표준화이다. 국가가 나름대로 만든 규칙보다는 오히려 정규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규칙들은 외국과 연결을 못하게 하고, 경쟁력을 약화시켜 프랑스 경제기관을 고립시킬 것이며, 나아가서 프랑스 기업체들은 그

*1 Gallicanism : 로마 교황의 절대권에 대하여 교회의 자치독립을 요구한 주장

*2 Armonk : 미국 IBM 본부

들의 장비마저 수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모든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제약을 받아 들이게 하는 힘이다. 표준화를 새장(Cage)에 견줄 때 만일 IBM이 이 새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IBM에 의존하고 있는 여러 경쟁기업들 누구에게도 새장의 문이 열려지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모두에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의심할 것 없이 그러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기술발전 속도를 늦추게 될 것이지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발전과정에서 지속적인 통일된 규칙을 만드는 것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기업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전기통신 조직의 노력이 있다면 야심적인 표준화 정책도 혁신을 지나치게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를 넘어 근본적인 통신 위성단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B. 통신위성

통신체제를 구성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통신망의 발달을 위해서 그리고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전송량을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통신위성은 텔레마타끄의 중심핵이 되어야 한다. 인공위성 경쟁에서 유럽 국가들이 소외됨으로써 통신위성 발사를 전담하는 NASA나 위성운동을 전문화하고 있는 회사, 특히 IBM에 대한 그들의 국가적 중요요소를 잃게 될 지도 모른다. 반대로 그들이 통신위성을 만들고, 띄우고, 운영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세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능력을 넘어서 행동구조를 가정한다.

이제 통신위성을 제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늘날 유럽 산업은 저성능 통신위성을 생산할 수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전송형태에 혁신을 가져 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신위성은 통신문 전송과 취급규칙이 없이 자료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반사하는 단순한 거울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통신망 체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접근원칙을 준수하도록 더 이상 강요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의 장애물과 충돌하게 된다. 그러나 통신위성이 없으면 국가는 텔레마타끄의 발전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또 프로토콜(protocol)이 없

이 만드는 통신위성은 무가치한 것이다.

플랫폼(platform)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통신위성은 발사되어야 한다. 미국 로켓에 의존함으로써 유럽 국가들은 유럽의 위성으로 하여금 국가권력을 신장시키지 못하는 만큼 손해를 볼 것이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즉, 이익추구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어느 일정한 분야의 권중된 발달을 피해야 한다. 아리안(Ariane)프로그램은 바른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나, 그 계획이 효능이 우수한 통신위성을 1985년~1990년 사이에 궤도에 띄울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어떤 경우라도 그러한 정책은 국제적인 구조내에서만 착상될 수 있을 것이다. 통신위성 수준의 의정서(protocol)의 비준이 보편적인 합의를 필요로 하며 한 나라가 그 엄청난 경비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프랑스가 지상 통신망에서도 협력자를 찾으려면 활발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C. 잠재적 동맹

국제적인 전송량이 대폭 증대됨에 따라 전기통신조직간의 끊임없는 협력이 요구되며, 협력하에 이루어지는 투자, 규칙과 절차의 정의, 그리고 재정적인 상호의존의 증대는 공동된 접근방식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정한 예를 들면 유럽의 CEPT, 세계적인 규모의 CCITT 등이 국제적인 전기통신이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통적인 체계를 형성한다.

전문기구들이 긴장과 분열을 경험해 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서독의 전기통신당국은 피상적으로는 유럽의 통신위성 정책수립에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왜냐 하면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함으로써 보장되는 중계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패킷 교환(packet switching)기술의 채택도 만장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패킷 교환방식에 집중해 오고 있거나 또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북유럽 제국들은 회선교환방식(circuit switching)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그들이 조려하는 문제들이 전기통

신분야의 일부로서 남아 있는 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잠재적인 경쟁자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개혁되고 있다. 이것은 데이터 전송의 표준화를 위한 통신약정의 하나인 X25의 채택으로 증명되었다. 여러 컴퓨터 제조업체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협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최소한의 연대의식으로도 유럽 국가들 사이의 공동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한 AT&T에서 받는 지원보다 더욱 큰 몫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IBM이 이러한 조직에 대해 발휘하는 경쟁력이 증가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요컨대 유럽 국가들의 통치권은 미국 전기통신회사와 협력함으로써 강화될 것이다. 이런 회사들은 회사의 구조나 이익추구라는 측면에서 유럽국가의 행정부에 접근하고 있다. 물론 AT&T가 미국과 세계시장에 대해서 IBM과의 견이 일치하거나 미국 내에서는 경쟁을 활발히 하면서도 세계시장에 진출할 때는 서로 협력 분담할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유럽 국가의 행정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용이한 일은 아닐 것이다. 왜냐 하면 이 두 거대기업들의 이익이 서로 다른데다가 그들 조직이나 역사가 서로간에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3. 통신망과 데이터 뱅크

통신망 체계가 출현함으로써 특히 캐나다와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뱅크가 크게 발달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많이 뒤떨어진 이 분야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 정책수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중대한 결과를 가져 올지도 모르는 외국에의 의존상태를 낳게 할 수 있다.

A. 소외의 위험

데이터 뱅크는 통계자료의 수집 및 보관 조건을 변동시키고 있다. 데이터 뱅크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무한히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는 고유자료나 참고문헌의 보존을 의미한다. 통신망과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원격조사가 가능하고 여러 취급조건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기술, 과학 및 학문활동에 대해 즉각적인 충격을 준다. 소규모 기업에도 같은 영향을 미친다. 즉, 소기업들이 어떤 제조과정을 알기 위하여 또는 대기업의 힘을 예상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데이터 뱅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 뱅크가 설립되기 이전에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흩어져 있었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2명의 사용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은 데이터 뱅크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흩어져 있는 종래의 정보에 만족한다면 어떤 분야라도 두 사람의 경쟁결과는 명백한 것이다.

데이터 뱅크는 학문적인 작업 또는 대기업들이 상업적 활로를 찾는 데에 이용된다. 이는 어쩌면 국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전송의 발달은 세계 어느 지점이라도 지리학계 데이터 뱅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몇몇 국가는 그들 자신의 데이터 뱅크를 설립하지 않고, 미국 데이터 뱅크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무관심은 그러한 의존이 다른 어떤 종류의 물자공급보다도 의존도가 낮고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또 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보는 저장조직이나 저장상태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항상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식은 언제나 형성, 축적됨으로써만 이용가능한 것이 된다. 멀리서 정보를 이해하는데 만족하면서 미국 데이터 뱅크를 사용하는 것은 문화적 소외를 격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결국 독자적인 데이터 뱅크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주권을 위해 긴요한 것이다.

B. 데이터 뱅크 계획

데이터 뱅크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일부의 데이터 뱅크는 극소수의 사람이나 폐쇄집단

그리고 어느 전문분야의 부속물로도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외의 데이터 뱅크는 어느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한다. 여기서 전자의 일부 데이터 뱅크가 부속물로써 사용될 때에는 어느 특정한 몇몇을 위한 것이나 후자는 국가적인 장기계획을 지원한다. 이러한 데이터 뱅크에 대한 접근방법의 개발 확대, 규제는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 보고서가 그러한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생기는 모든 법률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까지 취급할 수가 없다. 단지 데이터 뱅크에 대한 일반적인 방침을 결정하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의 주요부처들이나 대학, INSEE, 기술분야 장관들이 데이터 뱅크의 전

략적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면 주요 프랑스 경제제도가 국가적 기구를 만드는 기본이 되는 것 같이 보이나 국제적인 데이터 뱅크를 만드는 데에는 별로 유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전문기구를 이곳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끌어 주는 것은 정부만이 할 수 있다. 이에 당국이 데이터 뱅크 계획을 개발하여 제도를 확립하고 쓸모없는 검토를 피하고 수정할 책임도 갖는다면 그러한 행동은 더욱 알차게 되고 효과있게 될 것이다. 서독이 이미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였다.

제 2 부 역 점

정부에 권력기구를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권력기구를 사용하는 차이는 새로운 시장에 맞도록 유인해야 한다. 이것이 제1장의 주제이다.

정부는 컴퓨터 전문가에게 다른 일을 부여하지 말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은 제1장의 주제이다.

행성의 장기 계획은 행정전산화 자체를 동경시킬지 모른다. 역으로 정보공학의 발달 덕분에 행정전산화 동경을 완화시키고 단이거시는 훨씬 나은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전산화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은 제1장의 주제이다.

제 1 장 전기통신

전기통신은 컴퓨터가 상호 통신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이다. 전기통신망의 실시와 경영으로 새로운 데이터 처리의 경제, 산업 및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결정된다. 그들의 모세관 현상은 지역적 재편성을 촉진할 것이며, 관세제도는 중소기업들의 이윤을 조정하고 가정의 새로운 서비스 공급을 촉진하거나 통제하게 될 것이다. 통신망 제도에 대한 정책은 텔레마띠끄가 약간의 권력있는 분야에만 남는지 또는 민주적으로 분배가 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전기통신은 단순한 메시지의 전달수단 외에도 프로토콜 전송을 위한 매체로서 이용할 수 있다. 표준화 정책의 적극성에 따라서 전기통신장비의 보편화, 고정 이용자에 대한 자유부여, 소비자의 자유회복, 제조업자 간의 경쟁균등화 등을 이루면서 데이터 처리를 수용할 수 있다. 국제전기통신의 중요성을 주창한 기구인 "French Pole"은 주권문제에 관하여 IBM과 대등한 대화의 기구가 되어야 한다.

이 정책은 정부의 장기계획과 강력한 협상능력뿐만 아니라, 시장에 민감하고 융통성 있고 다양한 집행조직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필요불가결한 전제조건들은 오늘날 제대로 만족스럽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정부가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TRANSPAC이 성공한 예를 보면 앞으로 우편업무와 전기통신을 분리하고, 모든 관계자의 장기적 활동을 조정하는 체신부의 창설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1. 통일된 전략의 부재

현재의 상황은 행정기능과 그에 대한 규제권을 분명히 구별하지 않은 채 두 기능의 권력분배를 균등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A. 상반된 입장에 있는 다수의 참여자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송업무가 단일기관에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TDF(Telediffusion De France)에 의해 관리되는 라디오, TV 방송을 비롯하여 전기통신은 일반적인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통신위성은 발사 및 제조를 전담하는 국립우주항공연구센터(CNES :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에 속해 있고, 수출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인공위성의 일반특성에 관심이 있는 상공부와의 관련이 되어 있다.

그 위력은 부러 25억프랑의 투자계획을 내포하고 있다. DGT(General Telecommunication Directorate)는 단지 10억의 매상고에 3,500여명의 고용원을 유지하고 있고, 시장독점과 원가에 근거한 과세제도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TDF는 DGT로부터 독립하여 절대 필요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다루기 힘든 경쟁자와의 강면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동맹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TDF는 DGT의 이권과는 무관하게 통신위성 정책을 위해 CNES내에서 잠재적인 동맹자를 찾고 있다.

또한 국립우주항공센터(INES)의 부분적인 업무를 TDF와 DGT가 취급하고 있는데, 각기의 비중으로서 국립우주항공센터와 DGT, TDF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의 지상통신망에서 미래의 통신위성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송에 관한 치열한 경쟁이 DGT와 TDF간에 예상된다.

그 중 특히 극심한 것은 우주정류장(Space Platforms)의 통제이다. 이것은 오직 고도의 기술적 고려에 달려 있으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중재는(TDF와 DGT간) 현실보다는 장래의 방침이 합리적인 것을 찾아야 하며, 비판적 편견없이 적어도 국무총리실에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B. 규제세력과 행정기능

행정 구조에 있어서 전기통신기구의 위치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변동한다. DGT가 우편업무와 전기통신에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TDF는 공보부(Government Press Office) 소

속이었다가 공보 사무실이 폐지된 후 국무총리실에 직접 부속하게 되었다. 또 국립우주항공센터(CNES)는 상공부에 소속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적인 분산은 일반정책을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불가능하게도 되는데, 각 기관이 그 자신의 정책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면서도 그 기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에 의한 중재는 TDF가 바로 그의 감독하에 있는 한 더욱 더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기구는 고도로 집중된 힘을 행사하고 있으며, 동시에 배우와 감독자의 양면 역할을 하면서 공중업무와 업무의 시행규정을 제공한다. 이러한 복잡성은 조직의 특이성 때문에 노출된다.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지도하고 조정하고 권력과 집합기능간의 구별을 오래 전부터 당연시해 왔다. 이러한 사례는 전기통신 채널(pale)이 정책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정책의 도구는 장기적인 지도를 하려는 공중당국의 권한과 조직의 상업과 산업의 적응에 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요인에 대해서 조리가 있는 방향을 설정하게 하는 것은 특히 규제와 집행을 분리하고 서비스의 기능과 전달기능을 구별할 것을 필요로 한다. TRANSPAC에 이러한 개혁이 필요하다.

2. 시급한 과제

① TRANSPAC의 성공

데이터 전송망의 발전과 표준화에 관한 고차원적인 연구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통신정책의 기본이 된다. 이것은 공공당국이 DGT에 TRANSPAC 건설을 하도록 야심적 과업으로 TRANSPAC은 1978년에 운용되도록 되어 있고 점차 전체 영토로 확산되었다. 그 목적은 데이터 전송을 더욱 넓게 전파하고, 간편하고도 저렴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표준화를 보다 빨리 달성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작업을 표준화를 적극 추진시킨다. 이 표준화의 성공은 필수적인 것이다. TRANSPAC

은 DGT의 전통적인 사업실행의 혁신적인 변화에 따른 서비스 회사들의 전반적인 새로운 경쟁을 예고한다. 더우기 TRANSPAC을 장기적인 표준화 전략에 있어 단지 거쳐 가는 과정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

A. 서비스 활동을 수반하는 시장운영

① 시장 운영

주요 이용자들은 TRANSPAC에 자발적으로 의회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이용자들은 선택을 피하려고 회선의 낮은 능력 프로토콜이나 비밀문세의 이론화 정립 등을 기도한다. 논쟁이 명백하지만은 못하다.

주요 조직들은 이미 통신위성에 의한 앞으로의 전송에 대해 가정을 세워 놓고 있으며, 당분간 그들의 전용선을 보유하고자 함으로써 공중 회선망과 연결시키려는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한편 몇몇은 원거리지역에 있는 그의 지점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선택권은 TRANSPAC에 통화량의 최소의 이익을 주는 부분을 남겨 주게 된다. 예를 들면, 가장 멀리 떨어진 은행 지점과 공장 작업장과와 연결 등이다. 실제 이러한 것은 주요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를 동등하게 해 줄 것이다.

주요 고객들의 관점에서는 DGT가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오히려 상업적이어야 하는데, 이는 TRANSPAC의 경우 이윤의 결정이 주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회계 사무소는 TRANSPAC과 완전히 독립하여 자치적 회선망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전송의 적극적인 전략 때문에 공중업무가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될 위험성도 있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정부는 여기서 다른 것들이 TRANSPAC에 집중하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모든 논점을 잃게 되었을 것이다.

중소규모의 이용자와들 관련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만일 DGT가 이용자들의 유치에 성공하지 못하면 데이터 전송의 신장은 극도로 줄어들 것이다. DGT의 전송은 미묘하다. 그들은 큰 회사와 같이 개인화될 수 없으며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을 논점으로 이용될 수도 없다. 고객이 참여하는 유일한 동기는 특수 서비스(데이터 은행, 시간분할의 가능성, 추가적

인 기억용량)와 접속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고객을 찾을 입장에 있지 않다. 그러한 제도를 설치하는 것은 고객에게 달려 있지 않다. 그의 규모와 육중함 때문에 불확실하며 유동하는 시장의 요구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러한 업무의 발전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DGT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프로모터들과 동맹해야 할 것이다.

② 서비스 전략

텔레마띠끄의 발전은 기술적으로 가능성을 다양하게 - 전자우편, 전자 영상화된 통신업무, 데이터 은행의 접속, 가정신문, 녹화된 참고자료 등 - 수반할 것이다. 앞으로 몇년 동안 시장은 사용이 한정된 도구와 주요업무를 위한 수단을 만들 것이다. 한편 공공당국도 이익분석, 시장조사 그리고 사용자 모임과의 협상 등을 통해서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DGT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은 앞으로 전통적인 우편업무에서 전자우편업무로 바뀌면서 생기는 전자우편, 단체우편의 신속한 전환, 행정부와 기업의 내부통신 등 그 중요성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전망은 그 의의가 매우 깊다. 왜냐하면 비싸지 않은 기구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면서 고도로 표준화되므로, 수출에 적합하게 되어 산업의 잠재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DGT측의 융통성, 지속적인 시장조사, 유동적이며 분산되어 있는 충분한 상업 서비스, 소규모 이용자를 위한 자연적 매개체인 서비스회사의 능력 등은 TRANSPAC의 빠르고 만족할 만한 이점이 된다. 이것들은 전통적 행정이 잘못 준비된 데 대한 도전인 것이다. 고도의 숙련공이나 뛰어난 행정가의 능력안일지라도 반응이 의당 있는 것은 아니며, TRANSPAC의 성공은 국내기구의 변화에 달려 있다.

DGT가 유일한 지원자인 정부의 행정과 업무의 향상을 위한 텔레마띠끄의 도입은 정책상의 조화를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 그의 목표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비용과 결점을 파악하여 여러 기관("TDF" 또는 "DGT")의 계획추진을 위한 과정과 책임을 통제하면서 서로를 위임한

다. 이러한 추진력은 더욱 더 필요하다. TRANSPAC의 이익기간은 수년으로 계산되고, 그의 표준화된 결과는 과도기 단계로서 생각되지 않으면 쓸데 없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B. 표준화 정책의 과도기와 불충분한 단계

전화망이 모세관 같은 점과 공중업무를 동등하게 실행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용자들간의 균형을 개선함으로써, TRANSPAC이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훌륭한 서민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표준화의 높은 수준을 암시한다. 이것은 소규모 이용자들의 연결을 증진시키고 업무선택에 있어서도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TRANSPAC 상호간의 회선망에 광범위한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약정에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한 데이터 전송처리를 이용하더라도 상호간에 통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CEPT와 CCITT가 국제적인 기구로서 실제 장비에 대한 약정채택을 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 데이터 전송조직이자 주요 제조업자를 위한 수단인 ISO는 CCITT의 기능을 확장시킨다. 복잡한 규칙의 정의를 예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정부나 제조업자의 반대에 마주칠 것이다. 이러한 장애물이 실제 장비에 관한 약정에 대해 국제적인 일치를 약화시킬지라도 국제적 전기통신 범주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수적인 것이다. 즉, 그의 불화는 증대된 표준화와 더욱 엄격한 약정의 명령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것이 직접 달성될 수 없으면 DGT는 실제 장비에 관한 약정을 설정하는데 성공할는지 모른다. 따라서 유능한 서비스와 관련된 적합한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 유지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권력층의 지지를 얻는다면 건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전기통신은 요청된 기술적인 가능성, 실제적이고 재정적인 수단 및 독점으로부터 오는 중심적 위치로서 이익을 얻고 있다. 이 정책의 최종성공은 미래를 개방시켜 놓고 있다. 시장체제의 이러한 활동으로 동질의 약정이 위성에 의한 전송관리에 부여될 수 있을 때를 위한 활동부대를 만들지 않으면 살펴 본 바와 같이 프랑스는 국내권에

되는 이기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패할 것이다.

2. 공공당국에 대한 통제권 부여

만일 공공당국에게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려면 통신정책을 수행할 책임을 진 조직은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효과적으로 그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A. 전기통신기구 활동의 강화

텔레마티크는 전기통신의 한 분야이다. 가입자 수, 투자 수준, 그리고 이월액 결과에 의하면 전화장비에 투입된 집단노력에 따라 계속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객의 중요성, 경제적 효과의 비중, 주권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으로 전기통신 경영에 연관된 문제에 대한 엄격한 근거로 텔레마티크가 특별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화 계약자가 만족을 얻지 못하면 다른 공급자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반대로 잠재력 있는 TRANSPAC 가입자는 현재 결본을 가지고 위성과의 연결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DGT의 전화장비에 있어 집중은 생산성에 근거를 둔 계획수행역량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텔레마티크에 있어서 DGT 상품은 정교한 지도력에 달려 있다.

① DGT는 상업적 접근 방법을 택해야 한다. 통신정책은 통상고객의 욕구에 구매되지 않고 생산품을 분배하지만, TRANSPAC에서는 고객의 시장조사와 연결을 정당화시킬 만한 일부의 재공과 주문에 의한 연구로 주요한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설비 등이 요구된다.

② 그러므로 DGT는 직원채용을 고위간부까지 확대해야 한다. 효과적인 연구대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임금지표를 조정해야 할 것이며, 고용조건 이상으로 기술적인 작업에 더 높은 위치를 부여하려는 기술자들은 새로운 채용자를 받아들이기까지 분명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③ 만일 DGT의 상업시장의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TRANSPAC이 DGT의 자문도 없이 개발된 생산품을 판매하려 한다면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시장 목표와 기술적인 제약이 필요하다. 만일 DGT가 IBM과 동등한 대화를 하고자 하면 DGT는 그의 대화자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접근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④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상의 수정 즉,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다루기 힘든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업무를 재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루기 힘든 것은 잘못 적용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법규의 존재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행정관청 내의 전기통신 관리자와 그 하급자간, 정부부처의 공무원간에 야기되는 견해 차이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행정적 업무에만 기준을 둔 임금지표 내에 기술업무를 포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것이며, 전기통신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⑤ 현재 13만명의 관리자를 가진 DGT의 “노동집단”에서 집중화는 행정적 융통성과 모순된다. DGT의 현행 행정부서, 그 투자의 분 및 채용의 분권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객의 만족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은 TRANSPAC과 관련하여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TRANSPAC만을 위하여 융통성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아니면, 이러한 변화가 전기통신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어야만 하는가? TRANSPAC을 위한 합작회사들을 창설하려는 최근의 결정은 경계의 빛을 나타내며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형성된 작은 기업이 거대한 관료적 행정부와 맞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회사의 종업원은 언젠가는 다른 회사의 종업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TRANSPAC 상업활동을 위한 지원은 대부분이 DGT에 의해서 제공된다. 더욱이 TRANSPAC은 전송형태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커져서 데이터 전송망과 다른 체제간의 뚜렷한 구분을 없애는 것과 같이 전 영역에 확장을 보장하는 것은 전화이다. 따라서 텔레마티크는 TRANSPAC을 능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DGT와 TDF 인공위성정책간의 상황 하에서 TRANSPAC 체제 하나만을 위한 실마리는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기통신 그 자체의 관리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오래된 논쟁을 불러 일으킨다. 즉, 1개의 부서를 노동집약적인 우편사업과 고도의 자본가적 기업인 전기통신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기술적 발전은 이러한 곤란성을 가속화시킨다. 전기통신은 우편사업에서 그의 가장 이익된 활동 즉, 공공단체의 우편물을 전달하는 운송로를 침해할 것이다. 급후 이러한 2개의 업무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니고 상호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는 침체 또는 역행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반면에 다른 하나는 강력히 성장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편사업은 낮은 생산성을 갖는 수작업 등 노동력의 관리로 거의 분리될 수 없는 독점의 유보와 또한 어려운 때를 위하여 준비할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기통신은 더욱 복잡한 구도에 대한 전문 지식인과 강력한 개인 및 경쟁자의 대부분이 IBM과 대립하고 시장에서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할 의무를 내포한다. 우편사업은 인건비를 고려해야 한다. 왜냐 하면 전기통신에 의하여 침해받게 된 우편 서비스는 보다 합리적 임금수준을 세워야 하며 인력질감에 대하여 숙고해야 될 것이다. 두 분야의 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사실적으로 필연적인 산물이다. 만일 공공당국이 계속적으로 분리를 유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긴장과 어려움으로 가득찬 상태가 될 것이다. 최종 목적은 국가적 전기통신 회사를 창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실현은 점진적 발전을 예상한다. 정치적 지도자로부터의 압력은 행정업무를 변형시킬 수 있으나, 혁신은 하루밤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즉, 우정 및 전기통신부문을 위한 예산의 편성, 전기통신을 위한 기술적인 명령과 더욱 조화있는 인사 및 법리의 기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획부서의 책임 분산 등이다.

B. 체신부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할 정책의 범위, 국제적인 분기, 그리고 권한 하에서 조직의 중요성은 높은 수준의 권력을 요한다. 그의 권한과 구조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① 감독의 내용

두 가지의 오해가 배제되어야 한다. 첫째로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을 위한 감독은 통신정책의 권한 밖에 있어야 한다. 하나의 권력 하에 방송망과 방송내용을 함께 통합하면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둘째로 조정은 합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직무분장이 명백히 이루어지면 타 기구에 자기의 고유업무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한계를 구분하는 일이 끝나자 마자 최고의 기술과 새로운 시장경험으로서 기대한 경쟁자의 압력으로부터 TDF를 보호하면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요는 각자 사업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즉, 통신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당국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방침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수단을 결정하고 업무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특권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 자연적으로 독점권의 행사, 산업정책(H/W, S/W의 표준화)의 선언, 전반적인 투자의 분배가 생겨났다. 본질적인 새운을 결정하고 사용자들과의 정치적 대화를 보장하기 위해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원칙을 규정하는 것도 이의 임무이다.

그 대신에 행정기구 경영에 대한 어떤 간섭도 삼가해야 한다. 행정기구의 활동은 프로그램 계약과 회사계획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장기적 전망

결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집행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비교적 충분한 경제적 서비스를 갖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전략단위는 의사 결정자들을 위하여 유용한 선택권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한다. 권능은 통신의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하면서 연구기관에 의하여 지지될 수 있다. 권능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결과는 분석되어야 하리나 오늘날 이러한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몇 군데 기관, 즉 IREST, LRIS, IRIA 등에서 분석하고 있긴 하지만, 누구도 전반적으로 이들 질문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공식적인 행정지지도 받지 못하고, 무엇보다 누구도 의사 결정권의 범주 내에 위치하지 않는다.

③ 권한의 구성

체신부는 TDF 신탁과 CNES에 대한 부분신탁에 의해 재 명명되고 강화된 우편과 전기통신의 현재의 조직형태를 취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편업무로 인하여 너무 독점화되고 전화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 때문에 지나치게 확장되면 통신정책을 수행하는 재능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계획을 고려할 사항으로 제안한다.

- ① 최소한의 개혁적인 해결책은 체신부에 우편 업무와 전기통신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 사무국은 체신부로부터 TDF와 CNES만을 직접 떠 맡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때 DGT와 관계되는 이러한 역설적인 것은 강력하고 독점적인 사무국을 검토하게 할 것이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체신부와 관리책임을 진 사무국간의 논쟁은 결국 국 모호하고 균형을 이루지 못해 부질서와 퇴보의 원인이 될 것이다.
- ② 더욱 활성화된 대안으로는 우편과 재정업무를 책임진 국가 사무국을 체신부에 임명하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DGT는 통신성에 직접 의존하게 될 것이며, 조정된 통신정책의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DGT를 국가적인 회사로 변형하는 것은 이러한 계획의 일부이다.
- ③ 만일 공공당국이 수상에 속해 있는 일반통신의 대표단을 구성코자 한다면 공공당국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대표단은 TDF와 CNES의 일부 권한에 맡겨지게 됨으로써 DGT와의 관계는 더욱 애매모호하게 될 것이며, DGT가 우편이나 전기통신을 위한 일반 대표단으로서 두 기구의 목적을 갖는다면 후자는 이론적으로 그의 조정 특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료회의에서 참석했을 때 그 둘은 동등한 행정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통신국장에 대한 권한이 분명치 않을 것이다. 명목상의 권한을 갖는 대표단은 그가 외부의 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하급기관인 전기통신 국장은 오늘날처럼 산업 제국을 계속 감독해 나갈 것이므로 불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DGT가 우편업무 및 전기통신을 위한 국가 사무국의 배타적인 통제 하에 남게 되면 일반 대표단은 수상의 명의 하에 그의 중재의 타원성을 내세우며 그의 조정기능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DATAR의 태도가 증명하듯이 생각하기조차 힘든 것이지만, 일반 대표단은 우편과 전기통신을 위한 국가 사무국이 정부수반으로부터 계속적인 중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상의 끊임없는 지원을 전제로 한다.

대표단의 실정은 통신정책을 책임지는 당국에 과도한 관료주의의 경향을 주는 위험을 가져 온다. 이해관계의 규모와 국제적인 동반자로서의 중요성은 공사를 막론하고 정치적 권위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체신부의 창설은 단순한 대표단이 바람직하다는 최종 분석에 도달하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